

# 보 도 자 료

이제는 **경제의 시간** |



보도일시	2025.6.23.(월)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o	매수	1
담당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미생물팀)	부 장	김기철 (031-8008-9640)					
		팀 장	정일형 (031-8008-9680)					
		담당자	배호정 (031-8008-9681)					

## 경기도, 고속도로휴게소 공중화장실 손건조기 105대 위생점검 실시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고속도로휴게소의 공중화장실 손건조기 105대 검사 시행  
- 황색포도상구균 1건 검출, 노로바이러스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불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고속도로휴게소 25곳에 설치된 손건조기 105대를 대상으로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대(0.9%)에서 병원성 미생물이, 85대(80.9%)에서 일반세균이 일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휴게소 공중화장실 위생점검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에 따라 올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병원성 미생물 가운데 대장균군,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나, 1대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일반세균은 1대당 최대 1,200CFU(해당 시료에 집락을 형성할 수 있는 미생물이 1,200개 있다는 의미) 수준으로 식품 기준(과자 10,000CFU)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손건조기는 한국도로공사에 즉시 통보해 필터 교체와 내부 청소를 진행했고, 재검사 결과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공시설 손건조기의 위생 관리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기적인 필터 교체와 기기 내·외부 관리 강화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고속도로 휴게소 손건조기 오염도 조사 검사결과

### □ 경기도 내 고속도로휴게소 공중화장실 손건조기 검사 현황 및 결과

- 추진기간: 2025. 3. ~ 2025. 5.
- 검사대상: 경기도 내 고속도로휴게소 25곳의 공중화장실(남자, 여자, 남자장애인, 여자장애인)에 설치된 손건조기 105대
- 검사대상:
  - 세균수,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 노로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항목	세균수	검사 결과	검사항목	검사 결과
일반세균	불검출	20대 (19.2%)	황색포도상구균	검출(1대)
	100 CFU*/대 이하	51대 (49.0%)	대장균군, 살모넬라	불검출
	100~500 CFU/대	24대 (23.1%)	노로바이러스	불검출
	500 CFU/대 이상	9대 (8.7%)	코로나19 바이러스	불검출

\* CFU (Colony Forming Unit) : 1CFU는 1개의 세균 집락을 의미